

금남로에서 문화를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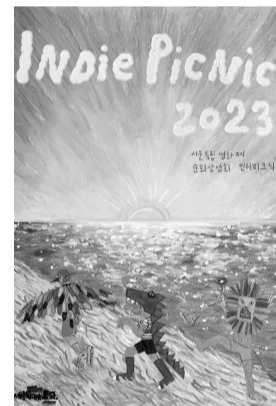
16~19일 '금남 인디주간' 축제
광주독립영화관 '인디피크닉'
'오후·성지송' 클래식 콘서트
한걸음 가게·도시 농부장터도

금남로 곳곳에서 공연을 비롯해 전시, 책, 영화 등을 모티브로 하는 축제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능이 끝나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금남인디주간'을 금남로 일원에서 연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영화'를 매개로 문화를 즐긴다.

광주독립영화관GIFT(이하 영화관)는 영화를 매개로 문화축전의 시간을 마련한다. '인디피크닉 2023'이 바로 그것이며 서울독립영화제 상영작을 광주에 선보이는 자리다.

오는 16일 오후 3시에 단편 '사랑의 알리지', '을지로', 작년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에 빛나는 '서울극장' 등이 축제의 막을 연다. 같은 날 오후 5시에 우수 단편상 수상작 '박영길 씨와의 차 한 잔', 오후 6시 40분에 대상 수상작 '자르고 불이 기' 등을 볼 수 있다. 관람료 5000원.



인디피크닉 포스터

영화감독을 만날 수 있는 GV(게스트 방문)도 마련된다. '급쳐합니다..네고불가'의 박현웅 감독, '그리고 집'의 정은욱 감독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한국멜로영화 클래식 '우묵배미의 사랑' 상영회도 있다. 실업자 일도(박중훈)가 아내(유혜리)와 경기도 외곽의 시골 마을인 '우묵배미'로 이사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 거리를 들썩이게 하는 다채로운 공연

금남로의 문화예술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예술이백그라운드를 거점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이목을 끈다.

오는 18일 오후 6시에는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콘서트 '포크락 기타리스트 오후X첼리스트 성지송 클래식 듀오'를 볼 수 있다. 인디씬의 강자 '오후', 크로스오버 활동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성지송'의 콜라보 무대다. 두 아티스트는 앞서 첼로와 어쿠스틱 기타로 편곡된 첫 미니 앨범 '사랑 할까요'를 발매하면서 호흡을 맞춰 왔다. 입장료 3만 원.

소리꾼 마승미가 들려주는 '판소리 흥보가 반창(半唱)'도 들을 수 있다.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며 정동 판소리를 기치로 내거는 '마산제 흥보가' 절반 가락을 노래할 예정이다. 전석 무료(선착순).

◇ 강연, 워크숍, '한걸음 가게' 등 눈길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강연, 워크숍도 시민들을 만난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한걸음 가게'에서 오는 18일 오후 5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을 연다. 빠르게 소모되는 배터리를 자가수리하는 특별 프로그램(참가비 5만 원).

같은 날 오후 2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도시농부장터-보자기장'도 이목을 끈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등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농부팀, 14개 음식 수공예팀이 참여해 토종식품을 판매하고 소농들의 네트워킹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특별공연으로 브라질 니그로들의 군무 '까마뉴 다 비다'를 오후 1시 40분부터 볼 수 있다.

◇ 강연, 워크숍, '한걸음 가게' 등 눈길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강연, 워크숍도 시민들을 만난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한걸음 가게'에서 오는 18일 오후 5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을 연다. 빠르게 소모되는 배터리를 자가수리하는 특별 프로그램(참가비 5만 원).



신수오 도시농부(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대표)

〈광주일보 DB〉



첼리스트 성지송(왼쪽)과 기타리스트 오후 (예술이백그라운드 제공)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강연, 워크숍도 시민들을 만난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한걸음 가게'에서 오는 18일 오후 5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을 연다. 빠르게 소모되는 배터리를 자가수리하는 특별 프로그램(참가비 5만 원).

같은 날 오후 2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도시농부장터-보자기장'도 이목을 끈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등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농부팀, 14개 음식 수공예팀이 참여해 토종식품을 판매하고 소농들의 네트워킹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특별공연으로 브라질 니그로들의 군무 '까마뉴 다 비다'를 오후 1시 40분부터 볼 수 있다.

◇ 강연, 워크숍, '한걸음 가게' 등 눈길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강연, 워크숍도 시민들을 만난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한걸음 가게'에서 오는 18일 오후 5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을 연다. 빠르게 소모되는 배터리를 자가수리하는 특별 프로그램(참가비 5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달 중순, 취재차 미국 샌디에이고를 방문한 기자는 뜻밖의 장소에서 낯익은 호랑이(성파 스님의 '수기명호도')를 발견했다. 전통 민화에서 한번쯤 본적이 있는 용맹스런 모습이었다. 발보아파크(Balboa Park)입구의 '샌디에이고 미술관'(San Diego Museum of Art, SDMA) 외벽에 내걸린 '호랑이'를 본 순간 웬지 반감에 느껴졌다. 건물 외벽 양쪽에 전시된 대형 포스터는 샌디에이고의 관광 1번지인 발보아파크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미국 서부에서 내로라하는 SDMA에 호랑이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특별 기획전 '생의찬미'(Korea in Color: A Legacy of Auspicious Images, 10월28일~2024년 3월3일)때

부했다. 10여 일간의 미국 출장 중 인상적인 건 K-아트에 대한 높은 관심이었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를 비롯해 필라델피아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구겐하임 등 유수의 미술관들이 앞다투어 K-미술을 주제로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사이의 강남스타일',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BTS 신드롬으로 이어진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미술로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LACMA에서 열린 한국화가 역대성 초대전 '고결한 먹과 현대적 붓'은 현대미술이 주도하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전

수묵비엔날레, 희망을 쏜다

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의 문화예술(K-Art)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한 순회전시로, SDMA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성사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1926년 개관한 SDMA 최초의 한국미술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어서인지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기원전 3000년부터 현대에 이르는 3만2000여 점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한국의 전통회화 50여점을 전시한다는 건 국제미술계의 빅뉴스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발보아파크를 방문한 미국인들은 개막을 앞둔 '생의 찬미'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취재일정상 관람하기 힘든 기자의 속사정을 알지 않는 SDMA 큐레이터는 "전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예약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좁혀볼 보기 힘든 전시인 만큼 꼭 관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신신당

통산수화의 힘을 보여준 일대 개거로 꼽힌다.

'물 드는 산, 멈춰선 물'을 주제로 내건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9월1일~10월30일)가 역대 최고인 관람객 43만 명을 기록하며 두달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19개국 190여명의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된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전통산수화에서 미디어아트에 이르는 수묵작품과 체험·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해 대중과 호흡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그동안 현대미술 비엔날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한 여건에서도 '수묵'을 특화시켜 경쟁력 있는 축제로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고무적인 성과다. 근래 국제미술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K-아트와 궤를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 수묵비엔날레가 K-아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전남문화재단연구소, 16일 신안서 마한역사문화유산 학술대회

마한역사문화권의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 전남문화재단연구소는 '마한역사문화유산의 미래를 논하다'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신안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3년 간 집약된 마한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며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발표는 권오영(서울대)이 '세계 문화유산의 맥락에서 본 마한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이정호(동신대)가 '역사문화권의 이해

와 역사문화자원화', 하승철(경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연구원은 '가야 고분군 사례로 본 마한문화자원의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이외 이탈리아 수잔 메이어(마체라타대), 영국의 헬레 요르겐센(버밍엄대), 중국의 왕지고(남경사범대), 오스트레일리아의 홍 사오춘(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교수 등이 발표한다.

전남문화재단 문화재단연구소 이재연 연구원은 "마한역사특별법 지정 후 3년여 진행된 사항들을 공유하고, 마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국의 사례를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며 "지자체, 연구원, 전공생 등이 마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QR코드로 사전 참가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황석영 "우리 민담의 상상력, 안테르센 동화보다 훨씬 재밌어"

'어린이 민담집' 5권 출간

"그림 동화나 안테르센 동화보다 우리 민담에 훨씬 더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작업을 하면서 저 자신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꼽히는 작가 황석영(80·사진)은 14일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민담 선집 중 맨 처음 다섯 권의 첫선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전체 50권 규모인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휴먼큐브) 중에 1권 '우리 신화의 시작'을 시작으로 2권 '연오랑과 세오녀', 3권 '해님 달님', 4권 '우

렁각시', 5권 '지하 마왕과 한량'이 한꺼번에 출간됐다.

황석영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민담 중에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냈다"면서 "대단히 특색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나 어머니, 늙은 이모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민담을 읽으며 체질이나 본성 속에 자기네 공동체의 스토리를 간직한 채로 성장



전 서재를 오랜만에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상자 속 노트들이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첫 다섯 권이 나온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은 내년 4월까지 모두 50권이 나올 예정이다. 수록될 민담만 150여 개에 달한다.

어린이를 위한 민담 집 편찬은 작가가 수년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드림아일랜드 Dream Island

☎(유)신진해운 061)244-0522